이회림 동양제철화학 회장 별세

향년 90세 숙환으로 사망 ... 마지막 개성상인으로 경제에 기여

송암 이회림 동양제철화학 명예회장이 향년 90세로 별세했다.

동양제철화학은 7월18일 새벽 창업자인 이회림 명예회장이 숙환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마지막 개성상인으로 불리는 이회림 회장은 비단을 파는 점원으로 일하며 받은 개성상인의 도제식 경영 수업을 토대로 1937년 건복상회를 세워 사업가로서 여정을 출발했다.

개풍상사 설립, 대한탄광 인수, 대한양회 설립, 서울은행 창립 등에 이어 1959년에 동양제철화학의 전신인 동양화학을 세운 뒤에는 40여년간 오로지 화학산업에만 매진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금탑산업훈장과 대통령 표창 등을 받았으며 한국과 프랑스의 경제외교활동에 기여한 데 따라 프랑스 정부로부터 기사작위와 국민훈장을 받기도 했다.

이회림 회장은 교육, 문화예술 발전에도 관심을 보여 1979년에는 재단법인 회림육영재단을 세워 학술 문화 부문 연구비 지원 활동을 했으며 1982년에는 인천 송도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해 송도 중고등학교를 운영했다.

또 1992년 인천공장 근처에 송암미술관을 건립해 인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공간을 제공한데 이어 2005년에는 평생 모아온 문화재 8400여점과 송암미술관 일체를 인천시에 기증했다.

유족으로는 이수영 동양제철화학 회장과 이복영 삼광유리 회장, 이화영 유니드 회장 등 3남3녀가 있다.

발인은 7월22일 오전 8시30분이고 장례는 회사장으로 치러지며 장지는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 오가리이다.

<화학저널 2007/07/18>